아티스트 , 인사이드 , 2

Hai Young Suh

무한히 증식하는 브릭Brick의 공간

작가 서혜영이 〈막(幕)〉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5. 14~6. 13 갤러리소소)을 개최, 연필로만 그린 캔버스 작업과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벽화 2점을 전시했다. 일찍이 '브릭' 이미지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공간성과 사유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확고히 했고, 이후에는 설치, 월드로잉, 영상 등 다양한 변주를 시도했다. 최근 들어 작가는 캔버스에 연필로 그리는 방식에 천착, 화폭 위에 브릭 이미지를 무한대로 증식시키며 일상적인 공간과 개인의 정서를 중첩시켜 재현해 내고 있다. 글 | 홍경윤 수석기자

오랜만에 개인전을 열었다는 소식에 서울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헤이리 갤러리소소를 찾았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희푸연 안개가 자욱하게 깐 듯 희색빛이 벽면에 어른거린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 안개가 걷히면서 무언가 보이기 시작한다. 마치 캔버스와 관객 사이에 쳐 있던 막(幕)을 걷어 낸 것처럼 말이다. 화면 안에는 사람도 있고, 꽃도 있다. 한 발짝 더 다가가 캔버스 앞에 착 달라붙어서 보면, 그 표면에는 벽돌 모양의 직사각형이 무수히 증식해 픽셀처럼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 여전히 서혜영은 '브릭(Brick)' 의 작가였다.

서혜영 1968년 서울 출생. 이화여대 조소과 및 이탈리아 브레라국립미술학교 졸업. 2002년 석남미술상 수상. 1996년 갤러리 보다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갤러리인 토탈미술관 금호미술관 등을 거쳐, 최근 9번째 개인전을 파주 헤이리 갤러리소소에서 열었다. 현재 갤러이아크리에이슬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 〈Brick-벽돌, 한국 근대를 열다〉전에 출품했다.

갤러리소소 전시 전경
왼쪽 페이지
〈유리워터스〉 캔버스에 연필
213×167cm(부분) 2003

'브릭' 에 천착하는 이유

입체이 작가 서혜영은 건축물의 기본 자재로 쓰이는 벽돌, 혹은 조형의 기초 단위인 사각형(면)을 모티프로 다양한 형식적 실험을 거듭했다. 전시장 벽면에 라인테이프로 월드로잉 작업을 하거나, 유리판과 거울 위에 실크스크린으로 브릭 이미지를 표현했다. 좀 더 입체적으로 투명수지와 철 파이프를 이용해 대형 설치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모든 요소를 영상 작업에 압축적으로 담기도 했다. 미술평론가 이은주는 당시의 작업에 대해 '벽돌의 이미지는 물리적 구축의 상징물이 아니라, 실제 공간을 끝없이 분화시켜 나가면서 3차원적인 중량감마저 해체해 버리는 개념적이고 기호적인 이미지' 라고 설명한 바 있다.

원래 대학에서 조각을 전공했던 서혜영은 1996년 인사동 갤러리보다에서 인간의 뼈를 본떠 만든 입체 작품으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3년 뒤 브릭 이미지를 이용한 작품을 처음 선보이기 시작했고, 또 그로부터 3년 뒤인 2003년 인화랑 개인전에서는 캔버스에 그림을 그려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캔버스에 재소를 칠하고 그려야 하는 '생 기초' 도 몰랐던 그가 평면 작업에 몰두한 것도 벌써 6년째다. 처음에 그림을 그리겠다던 그를 향해 주변에서 '용감' 하다며 반신반의했다고 한다. 회화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테크닉도 배우지 않았던 그가 어느 날 문득 '펜가 그리고 싶다' 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는 붓이 아닌 연필을 들었다.

작가의 말에 의하면, 붓에 물감을 묻혀 그리는 것보다 연필로 바로 그리는 것이 훨씬 몸과 가깝게 느껴진다고 한다. 작가의 손끝이나 몸 컨디션은 물론, 감정 상태까지 0.3mm의 가느다란 연필심에 실려 화면 위에 그대로 드러난다.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도 연필심이 '뚝' 하고 부러져 버린다. 자기와의 싸움인 이러한 작업 과정은 일종의 '제의식' 에 가깝다. 물감으로 그린 그림이야 플려도 좀 붕개서 해결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위에 다른 색으로 덮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서혜영은 종이가 아닌 특수 처리를 한 캔버스에 그리기 때문에 지울 수조차 없다. 한 번 플리면 끝이다. 그럼에도 작가는 종이처럼 매끄러운 느낌보다 캔버스의 텍스처를 선호하기에 이러한 고생을 감수한다.

서혜영의 연필그림은 요즘 같이 나날이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는 환경에서 보면 상당히 원초적인 느낌이 든다. 아직도 남아 있는 원시시대 동굴 벽화의 주재료가 바로 흑연이었듯이 연필은 가장 오래된 미술 재료이다. "사람들은 연필을 도태된 재료로 여기지만 사실 연필이야말로 가장 고전적이고 기본적인 재료죠. 특히 조각 분야에서는 여전히 돌, 나무, 흙처럼 가장 자연에 가까운 재료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잖아요. 저에게 연필은 가장 '자연스러운' 재료입니다." 어느새 작가 신체의 일부가 된 듯, 체화된 연필선에서는 그가 작가 활동 초기에 보여 주었던 설치나 영상 작업의 개념적인 측면이나 마치 자를 대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잘라 놓은 듯 딱 떨어지는 느낌과는 다른 인간 본연의 그 무엇이 표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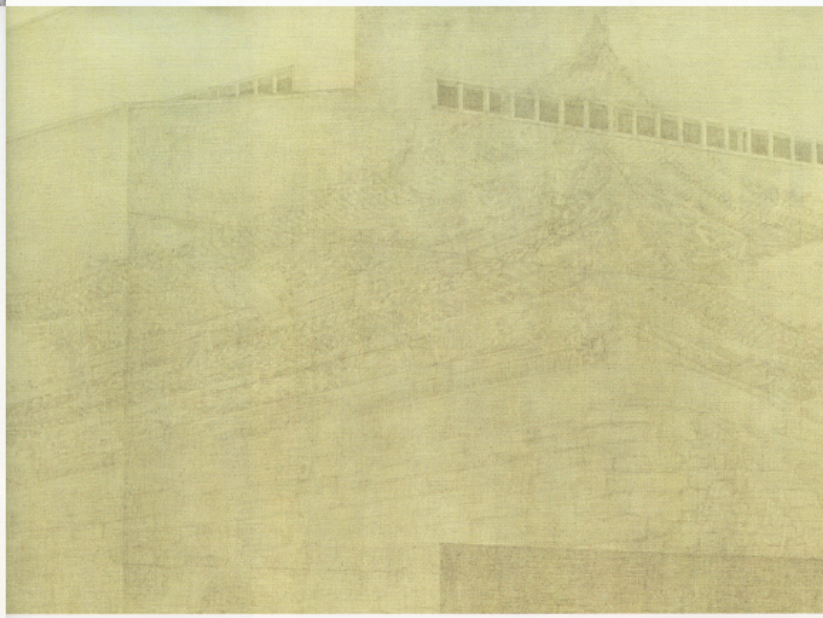
위 왼쪽 ·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 캔버스에 컬러펜슬 130×194cm 2006
오른쪽 · 〈선명하고 강렬한 화석〉 캔버스에 컬러펜슬 105×136cm 2007
아래 · 〈유리워터스〉 캔버스에 연필 240×180cm 2003
오른쪽 페이지 · 〈예하의 정원〉 캔버스에 연필 130×194cm 2010

연필로만 그린 그림

"처음에는 입체를 하든 평면을 하든 크게 구분을 두지 않았어요. 캔버스로 평면 작업을 한다는 것에 두려움도 없었죠. 하지만 평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입체는 끝나는 지점이 명확하게 있지만, 평면은 어디서 손을 놔야 할지 애매모호하죠. 평면의 '문법' 이 따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적이죠." 이쯤되면 그를 페인터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 현대 연필로만 그려진 그림을 두고 페인팅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드로잉이라고 해야 할까.

색에 대한 기댐 없이, 오로지 형태와 음영으로만 이루어진 서혜영의 연필그림은 다소 밋밋해 보인다. 그러나 이루워진 공간에 갑자기 들어서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조금 있으면 오히려 밝을 때 보이지 않던 것들까지 세세하게 보이는 순간처럼, 서혜영의 그림도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바라보다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때 시각적인 지각 작용의 문을 열어 주는 키가 바로 브릭이다. 이러한 특성을 두고 류제이터 이관훈은 최근 열린 개인전의 제목 〈막〉을 두고 장소를 가리는 막, 연극의 단락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또 다른 막(膜-인식의 막, 껴풉)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각적 봉로로 인식되어 온 브릭은 평면적 레이어 속에서 두 공간을 교차시키는 幕의 중간적인 間(여기와 저기를 잇는 사이 또는 관계)의 역할을 하며, 멀리서 보면 아련한 망점의 膜처럼 묘한 아우라를 생기게 한다." 유기체적인 브릭 이미지가 '피막' 으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개인전에서는 전시장을 압도할 만큼 거대한 벽화 2점이 단연 돋보인다. 하루에 8시간씩 꼬박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대형 작품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저극히 소소하다. 먼저 〈밤을 위한 피에스타〉는 작가의 지인들이 작업실에 놀러 왔을 때 찍은 사진을 그린 것이다. 거기엔 동료 작가도 있고, 미술 종사자도 있다. 또 다른 작품 〈이동의 경계〉는 집에서 작업실을 갈 때, 그리고 작업을 마치고 돌아 갈 때 달리 보이는 도로와 교각의 모습을 중첩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는 그가 가정생활을 영위해 나가면서 작가 활동을 지속시키는 것은 여간 녹록지 않은 일이다. 전혀 다른 현실인 집과 작업실 사이에서 바라보는 풍경의 괴리는 오히려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워 보인다.



일상적 장면을 중첩한 풍경

최근작에서 두드러지는 일상성은 2007년 금호미술관에서 개최했던 개인전 〈Still Room〉 선보였던 작품부터 엿보이기 시작했다. 이때는 색이 있는 샤프심을 사용해 마치 최근 작업과 동떨어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책장을 그린 〈사색의 단환〉, 중년 남성의 뒷모습을 그린 〈선명하고 강렬한 화석〉, 꽃이 꽂혀 있는 화병을 그린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 등 역시 화면 전체에 먼저 브릭 이미지를 깔고, 그 위에 계속 화를 쌓아 올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즉 작가의 눈이 브릭이 되어, 특별할 것 없는 사물과 풍경을 바라보았다. 매일 반복적으로 접하는 일상적 장면을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은 바로 대상과의 소통이며 재맥락화 작업이다. 사실 작가는 〈Still Room〉전을 열기 얼마 전까지 잠시 한국에 있지 않았다. 그는 2004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2년 동안 체류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 다시 돌아왔을 때, 미술계 현장의 분위기는 미술시장 붐의 여파로 천과 관이해졌다. 또한 40대로 넘어가는 나이에 그는 근본적으로 전환의 시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결과적으로 원숙한 여성성이 드러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미술에 대해 스스로 자유롭게 즐기는 태도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브릭 이미지 자체를 형상화하거나 투시도법의 공간과 수태고지와 같은 형이상학적 소재를 주로 다뤘다면, 이때부터 그의 작업에서 나무 꽃 하늘 사람 등 일상화된 대상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최근작은 묘하게 중첩된 이미지들이 각각의 객체보다는 조화를 이루며 화폭 자체가 하나의 풍경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설치 작업에서는 관객이 공간 속에 개입해 새로운 맥락을 이끌어내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의 평면 작업에서는 화폭 안에 '시작과 끝'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그가 그림만 그리는 것은 아니다. 최근 김해 클레이아크미술관에서 열린 〈브릭〉전에서 그는 과거 월드로잉 등 공간 설치 작업 사진을 파나플랙스로 인화해 붙을 겨두는 작업을 선보이기도 했다. 서혜영의 전시에서 특별하다고 느껴지는 점은 그림을 그리지만 공간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설치 작업을 했던 전력 때문인지, 캔버스화임에도 그는 주어진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보여 줄 것인기에 대한 '센서' 가 항상 켜 있는 듯하다. 네모반듯한 벽돌 덩어리가 건축가의 손길에 의해 각양각색의 건축물로 제 옷을 얻는 것처럼 서혜영의 브릭 이미지가 가진 조형적 가능성도 무궁무진하다. ◘